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1년도 표어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9차 KIMCHI 신학 세미나

-아프리카 불어권 4개국 지도자 초청-

오는 6월6일부터 14일까지 우리교회 부설기관인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은 제9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열고 아프리카 불어권 4개국 콩고, 차드,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교계 지도자들 32명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를 비롯 동구권 7개국, 아프리카 21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모슬렘권 국가, 인도-스리랑카와 같은 힌두권,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거주 중국계, 그리고 일본, 네 팔, 캄보디아, 월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오세아니아안 국가

등 52개국 지도자들이 김치 세미나에 지금까지 참여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열의 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올해 KIMCHI 신학 세미나는 아홉 번째가 된다.

1996년 3월에 로잔 세계위원회(LCWE)는 김치를 공인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마다 참여자들의 왕복여비와 숙박비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KIMCHI 위원회는 올해도 한 구좌를 미화1,000불(한화 125만원)로 정하고 독지가를 모집 중에 있다.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늘 저녁 교사 헌신예배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을 19개 교회학교 부서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새해 첫 번째 드리는 헌신예배에서 교사들의 새로운 다짐과 헌신이 있기를 바란다.

어린이 오후 예배 미스바 홀로 쟁쟁하다.

서울교회는 이 나라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주일 오후 5시와 수요일 오후5시에 어린이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장소를 교회 1층 102호 미스바 홀로 정하였다. 어린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모저모



하늘의 화음을 들려준 그레이스 핸드벨 choir와 시온찬양대

탈북난민을 위한 자선음악회 -이 화음이 북녘땅에도 들리길...



새해성전에서 처음 열린 새가족 환영회-성도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역담당장로님들께 꽃과 기념품을 받고

비전2020운동-군에 입대하는 성도를 위한 기도



2월중 행사

- 2월 4일 (주): 교사헌신예배
- 2월 4일 (주): 교육위원회
- 2월 11일 (주): 전도위원회
- 2월 18일 (주): 교구위원회
- 2월 21일 (수): 입당감사미사제 (1달간)
- 2월 21일 (수) : 세례식
- 2월 23일 (금): 서울신학심포지움
- 2월 25일 (주): 새가족환영회
- 2월 25일 (수): 찬양위원회

이번주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장25-26)

○"All this I have spoken while still with you.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Jn : 14;25-26)



우상숭배의 무상함

이사야(41:21-29)



이중윤 목사

본문은 바벨론과 그 속국들의 우상주의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지적하면서 유대인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을 힘있게 하기 위해 우상들과 도전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곧 우상에게 여호와께 소송하듯이 할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소송에는 증거가 필요하듯 우상에게 신적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1. 장래 일을 진술하라

장래사를 참되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역사 속에 피조물로 나타난 우상들은 장래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으므로 장래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혹 우상의 예언자가 장래사를 말하나 그것은 거짓과 간교에 의한 것일 뿐 그들에게는 장래사를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22절).

여기서 이전 일을 과거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미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거사로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역사의 시초를 명백히 설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래사로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장차 당할 일은 앞선 일, 심판 보다 조금 앞에 되어질 일,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귀국시킬 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은 먼 역사의 종말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자의 해석을 택합니다.

거짓 신은 예언 성취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 복과 재난을 내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과 인근 속국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를 대적하는 사실에 도전하여 말씀하십니다(23-24절). 이렇게 도전적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의 생활이 도무지 헛된 사실임을 강하게 말씀하려는데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야 바로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 중에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심령 속에 있는 사상적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 물질을 탐하는 생각도 우상이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되이 가르치는 철학, 과학, 윤리 등은 모두 허무한 우상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이 같은 우상주의가 빚어놓은 것입니다. 우상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원수, 곧 우상주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으므로 그가 참 신이십니다.

본문 25절은 고레스 왕을 가리킨 예언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가 동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25절에서는 북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방이라고 한 것은 그가 바벨론 북쪽 메대에 오래 거했기 때문이고 동방 해돋는 곳에서 올 것이라고 한 것은 그의 출생지가 파사

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란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참 신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스 1:2-3).

하나님은 고레스가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25절)처럼 바벨론 땅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셨고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고레스가 일어남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혹 예언을 할지라도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우상주의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하는 일이 모두 헛됨을 말씀하시며 그들 중에는 장래 유대에 대하여 예언할 자가 하나도 없음을 단언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이란 장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언이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대언을 말합니다. 대언은 과거의 일을 말씀하기도 하고 현재 또는 미래 일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반드시 미래 사항만을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시대 이후 교회 시대의 대언 사역은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예언 운동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고 맞추는 것은 이적이인데 이런 일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했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적은 성경기록과 다르고 계시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특수하게 섭리하여 주신 다는 것입니다.

미래 예언을 성경 보다 더 좋아하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부끄러운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순종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고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노재균(대학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이번 성경통독 사경회 역시 나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아 성경통독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르는 말씀은 구절구절 은혜로웠다.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을 그으려고 했는데 어느 한 구절은 은혜롭지 않은 구절이 없어서 밑줄을 긋기가 어려웠다. 어떤 구절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스러웠고 어떤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특별히 나에게 은혜로웠던 말씀은 사무엘 상 17장 45절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말씀이었다. 나도 세상에 나갈 때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더욱 은혜롭게 성경통독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 즐거운 잔치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입당감사미술전을 준비하며

전기섭 장로 (2교구)

할렐루야! 서울교회 새 예배당 입당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본 교회는 입당감사 미술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다. 선교사명과 문화적 사명이 그것이다. 선교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신자에게 주어졌고, 문화적 사명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번 미술전을 계획하였다. 먼저 서울교회 미술인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화폭을 전시하기를 원한다. 또한 성도들이 보관하고있는 작품들도 전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아울러 본 교회 교인들이 아닐지라도 기독교 미술인들이 기독교 문화 창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자선음악회를 보고 ...

지난 1월 27일 오후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자선음악회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렸다. 오붓한 분위기에서 핸드 벨의 영롱한 음률과 아름다운 노래, 실내악과 합창의 순서가 이어지는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북한 동족에 대한 애뜻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북한난민 보호를 위한 자선 음악회라지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앉아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조차 저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뿐이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여 UN에 북한난민수용소 건립에 대한 서명을 한 것이 96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며 발품을 팔았는가. 김창철 장로님은 북한 동포들의 실상과 북한을 탈출하여 무작정 인접국가로 도망가는 난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탈출한 그들에게는 강제송환의 공포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제 천 만 명 서명이 이루어져 News Week지의 Cover Story로 다뤄지게 되면 북한난민보호는 언론의 도움을 힘입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 추운 겨울에 조국을 등지고 무작정 살길을 찾아 떠나는 북한 동족들을 생각하며 최소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용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허 숙 (편집부)

서울교회 실업인선교회를 결성하며

신용식 집사 (10교구)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하였습니다. 실업인 선교회는 선교사업에 힘쓰며 실업인 상호간에 친교와 협력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해 가는 성령활동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사업체 종사자, 장차 사업 경영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선교에 관한 사업뿐 아니라 특강 및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사업에 관한 정보와 친교를 이루며 주님사업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실업인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점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선교,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목회자 선교활동 지원 및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원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여러 분과를 만들어 분과별 활동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의 모범을 보인 안디옥 교회처럼 서울교회의 선교사업의 모델이 되는 직능별 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왔어요

정인주, 김정애 집사(1교구)

Q: 어떻게 새해 첫 주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지요?

A: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온 후 일년동안 가까운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지난 연말에 교통사고로 입원중 대전의 목사님께서 서울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등록했습니다.

Q: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요?

A: 부부가 함께 봉사하기 쉬웠던 찬양대 봉사를 해왔으나 서울교회에서는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Q: 두 자녀(태완, 여연)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요?

A: 분반공부 시간이 짧아 친구들과 교제할 시간이 부족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절저한 신앙교육으로 삶의 기초를 쌓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에 대한 인상은?

A: 목사님의 말씀으로 구태의연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단하게 됐고 매주 보내주시는 양육서신과 새가족부의 조직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골절되어 수술 받은 팔이 놀랍게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신 새가족부 교사들께 감사드리며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 기념촬영



두분의 다정한 모습

2001년도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결연 상황

구분 번호	교회명	후원자
1	계곡제일교회	홍순복
2	고향교회	하인선,남태순
3	근천리교회	권장철
4	광곡교회	임상현
5	굴암교회	정년부
6	금진교회	정년부교사
7	금성교회A	빌립남선교회
8	금성교회B	이강인,허숙
9	금평교회	김종자
10	낙원교회	이동만,이은자
11	남창제일교회	전기섭,원영애
12	내도중앙교회	박정순,김경옥
13	대한성결교회	김복녀
14	봉교교회	전수자
15	동화교회	최재규,천경화
16	둔병교회	새가족부
17	마장교회A	윤봉준
18	마장교회B	권장철
19	만년교회	정무균,이영희
20	명계교회	나미용
21	모악제일교회	2-16다락방
22	목소교회	신순우,김복순
23	목포열린교회	신순우,김복순
24	박산교회	신순우,김복순
25	방축교회	제2권사회
26	백도교회	이인희,백영희
27	백마교회	모세선교회
28	봉기교회	이성근,김영림
29	봉길교회	오경수,이영희
30	부남명성교회	엘리아남선교회
31	북면중앙교회	이남정
32	사목별렐교회	탁경순,권정숙
33	사봉로교회	전기섭,원영애
34	사정리교회	제2권사회
35	산야교회	박순옥
36	산진교회	이영희
37	삼진교회	제1권사회
38	상리교회	오경수,이영희
39	새뜰교회	노분환
40	새화순교회	베드로남선교회
41	서광교회	엘리아남선교회
42	서하교회	베드로남선교회
43	성광교회	김상철,회원자
44	성루교회	모세담선교회
45	늘봄교회	스데반회
46	새광교회	아브라함남선교회
47	송리교회	바울남선교회
48	송천교회B	조철기
49	송천교회A	이양철,김미향,이성화
50	수락교회	바울남선교회
51	수목교회	사랑의 회
52	송원교회	바울남선교회
53	시온교회	바울남선교회
54	신덕교회	스데반회
55	신성교회	가브리엘찬양대
56	신암교회	장명순
57	신진교회	서상근,김에환
58	신촌교회B	도르카여전도회

구분 번호	교회명	후원자
59	신촌교회A	김경애
60	암곡교회	뫼뫼여전도회
61	양평교회	뫼뫼여전도회
62	연양영신교회	뫼뫼여전도회
63	여원동교회	루디아여전도회
64	연보리교회	주경자
65	영광교회	마리아여전도회
66	예덕교회	마리아여전도회
67	오마교회	박철훈,이경희
68	오전교회	신용식
69	운암제일교회	마리아여전도회
70	울곡교회	마리아여전도회
71	월송교회	마리아여전도회
72	월평성광교회	에스더여전도회
73	은성교회	에스더여전도회
74	주왕산교회	에스더여전도회
75	죽림교회	김병설 외20명
76	진도주안교회	김규태,박미혜
77	잠빛교회	노영숙
78	천복교회	한나여전도회
79	청수교회	최중시,4-10,11다락방
80	청풍은정교회	사라여전도회
81	초전교회	임광식
82	춘양동아교회	사라여전도회
83	충도교회	완경래,김경희
84	태백서부교회	사라여전도회
85	필암교회	박두호,한성옥
86	행정교회	정동학,김복순
87	화순청풍교회	김계술
88	화평장교회	사라여전도회
89	황광교회	안인호,이명신
90	옥석교회	사라여전도회
91	산달교회	김시훈
92	일산교회	오유식,이동규
93	동부교회	교역자회
94	금호교회	이훈
95	반송교회	안드레남선교회
96	신월교회	최학인,최소희
97	봉수교회	김사무엘
98	마동교회	스데반회
99	신암교회	엘리아전교회
100	아산교회	김시훈
101	양평교회	하영수
102		이민생

헌금계수부담부 정성껏 바친 헌금을 대하여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정성껏 모아지고, 정리하는 부서가 있으니 바로 <헌금계수부>이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기념할만한 일을 당했을 때 드리는 감사헌금, 그 외 주일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등 여러 헌금이 주

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헌금위원이 헌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한다면, 헌금계수위원들은 모아진 헌금들을 각 제목에 따라 분류, 집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24명의 계수위원들이 봉사 중이며,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헌금계수위원들은 성도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을 대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바친 마음까지 만나는 심정으로 봉사하신다. 헌금 계수부에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헌금 봉투에 교적번호, 이름, 헌금액수를 적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바칠 것을 당부하셨다. 간혹 봉투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곤란을 겪기도 하신다. 헌금봉투에 적힌 액수는 연말정산 시에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바쳐야 한다고, 성도들이 바친 헌금이 주님의 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쓰이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는 헌금계수위원들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나소경(편집부)



흰가운을 입고 헌금을 계수하시는 위원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일(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과 신과 대학 공동주최로 열리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강연한다.
- 조대영 선생(유아부 지도)은 장신대 신대원을 2월 15일에 졸업한다.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남호장로, 여옥기권사 (12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위해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1년 계획한 것 성취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